제12차 태평양연안국 원자력회의 유치
(The 12th PBNC, Pacific Basin Nuclear Conference)

이 창 건
원자력위원 · 전력기준위원회 위원장

태평양연안국 12개국으로 구성된 태평양원자력협의회(PNC, Pacific Nuclear Council)는 매 2년마다 장소를 바꾸어 가며 국제원자력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종래의 관례에 따르면 2000년도의 제12차 PBNC는 한국에서 거행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인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중국 장쩌민(강택민) 주석과 미국 Clinton 대통령이 미국 원자력기술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에 합의하게 되자 중국원자력학회는 차기회기를 북경에 유치할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중국도 제12차 PBNC의 유치경쟁에 뛰어들게 되었다.

중국의 유치요구는 관례에 어긋나는 일이고 우리 체면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생각한 한국원자력계는 '97년 11월 미국원자력학회 동계대회 개최시에 열리는 태평양원자력협의회 모임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제12차 PBNC는 2000년도에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이 순리이고 순서라는 논리를 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제안설명의 임무는 1982년 12월에 열린 미국원자력학회에 참석하여 제5차 PBNC(1985년도)의 유치계획을 설명하여 중국을 이기고 유치에 성공했다 하여 본인에게 부과되었다.

제5차 PBNC 개최지 선정에 앞서 중국측은 1980년대초에 미국의 유력자 여러 명을 중국에 초치하여 죽(竹)의 장막너머에 가리워져 있던 수많은 관광명소에 안내했고 아울러 정치지도자들과의 면담도 주선하는 등 국빈처럼 극진하게 대접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에 다녀온 미국인사들은 중국측의 호의와 정성스러운 대접에 보답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꼈음인지 다음번 회의 장소는 북경이라고 못박았고 그중 다섯 번이나 중국에 초청받은 미국학회 사무총장은 그 일에 앞장서게 되었다.

그때 우리 유치단은 한국전력의 成樂正 부사장, 昔成煥 부장 등 여러 명으로 구성되었는데 한국전력 임직원들은 한국에 진출한 또는 진출하려는 미국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벌였고 나는 연구기관과 대학교수들과 접촉했다. 그러나 만나는 미국친구마다 판세가 중국으로 기울여져 있다고 귀띔해 주는 것이었다.

생각다 못한 나는 중화민국 대표에게 북경보다는 서울에 PBNC를 유치하는 것이 당신네에게도 유리할 것이니 공동작전을 펴자고 하면서 차제에 중화민국도 출마해 달라는 말과 함께 내가 모든 서류를 작성해 주겠다고 했다. 그러면 중공의 세(勢)를 꺾게 되고 또 한국

은 漁夫之利를 얻게 될 것이니 이것이야 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문틈으로 구경하는 식모까지도 좋아할 일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러나 대만대표는 그것은 君子의 道理가 아니라고 점잖게 거절하면서 대신 한표라도 더 많이 나오도록 뒤에서 한국을 적극 밀어 주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대만의 鄭振華 선생에게서 大國人의 체취를 느꼈고 반대로 내 자신 너무 초라하고 왜소(倭小)하다는 생각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차기회의 유치를 위해 정지작업을 오랫동안 충분히 한 중국측은 유치신청서를 제출하는 요식행위만 갖추면 PBNC유치가 틀림없이 성사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젖게 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한국의 제안설명이 대단히 논리적이고 많은 자료제시로써 성실하고 충실하게 꾸며져 있어 통역의 도움을 얻어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끝난 중국측 제안을 압도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미국원자력학회는 중국측에게 약속한 묵시적인 언질에 얽매었음인지 제5차 PBNC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할 수 없어 학회장이 북경에 가서 양해를 구하는 등 6개월간에 걸친 힘겨운 줄다리기 교섭 끝에 겨우 "이번엔 서울에서, 다음번엔 북경에서"라는 변칙적인 개최지 동시발표를 곤욕스럽게 하게 되었다. 이렇듯 미국인들은 그간 중국측으로부터 받은 환대의 대가(代價)를 톡톡히 치루었던 것이다.

이번에도 중국측은 인쇄해 온 3매의 설명서를 15분간에 걸쳐 읽는 것으로 끝났으나 본인은 27매의 멋진 Slide를 비춰가며 35분간 정성스럽게 설명했다. 중국진영엔 1982년도의 쓰라린 경험을 맛본 인사가 없는 반면 우리쪽엔 그때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때와 꼭 같은 일을 그때처럼 한 것이 성공의 비결이었다. 이처럼 경험은 돈 주고도 못사는 것임을 다시금 실감했다. 2000년도의 제12차 PBNC 유치 제안설명내용 12개 항목 중 두 가지 만을 다음에 적어 본다.

○ 회의 시기

- 우리는 회의시기를 2000년 10월 셋째주로 예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 한국의 가을은 높고 맑으며 공기는 따사롭고 기후는 누구에게나 온화하다. 또 가을 하늘의 달은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둥굴고 가장 아름답다.
- 빛나는 햇빛 아래에서 모든 잎은 꽃으로 변하고 총각 처녀는 애인이 되고 그러다가 신랑 신부로 승화(昇華)한다.
- 그래서 감성이 메말라 있는 과학기술자마저도 이 시기엔 시인이나 예술가가 되려는 유혹을 받게 마련이다.
- 그러니 여러분들도 짝을 동반하여 와서 사랑의 계절을 만끽하기 바란다. 한국의 뭉게구름 아래에서 결혼식을 거행할 생각이 있는 사람은 제5차 PBNC 때 약혼자를 데리고 서울에 오라(이런 얘기는 대동강물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 같은 주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음).
- 다만 기후가 너무 좋아 대부분의 학회들이 이 시기에 연차대회를 거행하게 되므로 그들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회의일자를 미리 공표하여 관련 학회의 Calendar에 우리 행사일자를 사전에 삽입(Forestall)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결 론

- 만일 내가 정치가라면 지금 서울 국제무역센터에 건설중인 세계적 규모의 국제회의장이 우리 원자력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제12차 PBNC 개최용으로 짓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2000년 봄 ASEM(Asian-European Meeting) 회의 때에 사용될 예정이므로 우리는 ASEM 회의 거행중에 드러날 여러 가지 시행착오사항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정책을 세워 다음 회의를 훌륭하게 치룰 예정인 것만은 확실하다.

-혹 내가 장사꾼이라면 현재 인천 앞바다에 짓고 있는 세계 최대의 초현대식 비행장이 제12차 PBNC 개최시기에 맞추어 건설중이라고 허풍을 떨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것이고 그러다가 혹 그것이 2000년 10월의 PBNC 참가자를 위해 사용될 수 없게 될 경우엔 그때 가서 또다른 구실을 붙여 변명할 터이지만 그러나 나는 진실만을 얘기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건설도중이라는 말만 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반시설(Social Infrastructure)은 국제회의를 치루는데 지장없도록 많은 것이 갖추어져 가고 있다.

-만일 다음 회의를 한국에서 치루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人力개발을 One-step 도약시킬 것이고, 우리 기술개발능력을 Two-steps 깊게 만들 것이며, 기자재 설계 제작영역을 Three-steps 넓힐 것이고 또한 우리 서로의 우정의 농도를 Many more steps 짙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적대적이고 또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한반도에서 우리 북한 동료들을 초치하여 (그들의) 무기를 두들겨 核보습과 원자력낫으로 개조하는 일을 가능케 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진정으로 다음 서울에서 열릴 원자력회의를 통하여 북한 원자력전문가들과 가슴(Heart)과 머리(Brain)와 Software와 hardware를 共有하기를 갈망하는 것이다.

이 역사적인 Nuclear Mission과 New-Clear Mission에 여러분 모두를 정중하게 초청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Symphony Orchestra 그림을 Screen에 비치며 다음과 같이 끝맺었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 원자력전문가들은 여러분들의 올바른 지도를 받아 한국원자력계의 지원과 지휘(Sponsorship and Conductorship) 하에 국제적으로 멋지게 Orchestrated된 원자력회의를 2000년 10월에 서울에서 개최하고자 하니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란다.

1982년도엔 중국원자력학회 대표단이 제안설명에서 완전히 패배했음이 자명한데도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6개월간이나 버티는 바람에 미국원자력학회와 태평양원자력회원국들이 곤욕을 치루었다. 그런데 이번엔 두 나라의 제안설명이 너무도 차이가 나고 평가자들의 반응이 전적으로 한국측에 기울자 자기네의 준비가 미흡함을 자인(自認)하며 좀더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 이번엔 양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만장의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고 나는 중국원자력학회 부회장 Wang Naiyan(王乃彦)교수에게 다가가 "형님(Big Brother)"이라고 부르며 사의(謝意)를 표했다. 이때 많은 Cameramen이 셔터를 눌러 우리는 정말 황홀했다. Observer로 참석했다는 미국중앙전력연구소(EPRI) 간부는 발언권을 얻어 이런 멋진 광경은 근자에 보기드믄 일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세계가 이같이 양보하고 협력하면 평화와 발전이 틀림없이 우리의 것이라고 기뻐하는 것이었다.

나는 '87년의 6차 PBNC를 준비하는 중국원자력학회의 요청에 의거하여 한번은 한국전력 朴正基 사장님과 함께 또 한번은 혼자 북경에 가 그들의 회의 준비를 도와준 일이 있다. 1992년 제8차 PBNC를 준비하는 대만원자력학회에서도 초대를 받아 처음으로 집사람을 데리고 해외여행을 한 일도 있다. 대만은 북경보다는 회의를 더 잘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본인을 가정교사로 불러 들였던 것이다. 북경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만에서도 성심성의껏 그들을 도왔던 것을 보람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한다.